

尹, 경제 6단체장과 '오찬 회동'

규제 개혁 약속...尹 "기업의 방해요소 제거할 것" 경총·전경련 "역동적인 환경 조성해달라" 환영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1일 경제 6단체장과 오찬 회동을 했다. 윤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기업을 자유롭게 운영하는 데 방해되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라며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단체장들과 만나 도시락 회동을 했다. 윤 당선인은 "이 자리는 제가 말하기 보다 경제에 계신 분들의 애로사항이나 정부에 바라는 점을 듣기 위해 모신 자리"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경제를 완전 탈바꿈해서 자유시장경제(체제를 만들겠다)"고 큰 비전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정부는 인프라를 만들며 뒤에서 돕고, 기업이 앞장을 서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일자리를 만들어내면서 투자도 하고 기업이 커가는 게 나라가 커가는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경제 성장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소득이 올라가는 것"이라며 "기업이 성장하는 게 경제 성장"이라고 자신의 경제관을 밝혔다.

그는 "기업은 자유롭게 판단하고 자유롭게 투자하며 성장하고, 정부는 (기업 성장의)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기업을) 도와주는 것도 쉽지 않고, 기업이 자유롭게 운영되는 데 방해되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는 게 가장 정부가 할 일이 아닌가"고 거듭 강조했다.

경제 6단체장은 윤 당선인의 규제 개혁에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순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세상은 빠르게 발전하고, 디지털 기술 혁신이 다양한 분야의 신산업 성장과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며 "급격한 변화에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역동적인 경제 활동을 펼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절실하다"고 했다.

손 회장은 "우리나라는 기업 규제가 너무 많아 걸림돌로 작용한다"며 "국내 투자 활성화, 신산업의 진입장벽을 없애기 위해 규제

개혁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성장과 번영을 지속하기 위해 시장 경제 활력이 중요하다"며 "기업·장의·혁신 DNA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을 보탰다.

그러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것을 개선해 경쟁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시장 경제 활성화도 좋지만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와 경쟁도 해야 한다"며 "민관 협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즉 정부 주도의 산업에 민간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우리 정부도) 바이오 등 전략 산업 육성에 시동을 걸고 발전하고 있지만 좀더 과감하고 전략적으로 생각할 부분 있다"며 "미래 인프라 구축, 산업 혁신 전략 등에 민간이 관여하면 저마다의 아이디어 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중소·중견 기업 역시 저마다의 고충을 설명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극심한 노동자 임금 격차를 언급했다.

김 회장은 "대기업에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좋지만 대기업에 비하면 중소기업의 매출 수



준은 반의 반 정도"라며 "대기업 근로자의 평균 월급은 520만원이다. 중소기업 근로자 월급은 2분의 1도 안 된다"고 현황을 언급했다.

그는 "중소기업이 저성장에 빠지고, 젊은 근로자가 안 오는 문제 역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도 "대기업은 해당 사항이 미미하고 (대기업의) 하청을 맡는 중소기업에 해당된다"며 "이 부분이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일년에 300~400개의 중견기업이 새로 생긴다. (이 같은 기업이 더 성장해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나 사회 대기업 클럽으로 가입시키는 게 저희의 목표이기도 하다"며

"(성장기에는) 새로운 기술, 인력, 시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작은 회사, 뜻이 있는 젊은 기업인과 호흡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현재 무역계의 시급한 과제를 건넜다.

구 회장은 "코로나19로 침체됐던 물류 시장이 급속도로 반등하면서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며 "선박, 항공 등 국가 물류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건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글로벌 공급망 문제도 무역계의 큰 위협"이라며 "기업이 개별적으로 대응이 어려운 글로벌 공급망 문제에 각별한 관심 갖고 지원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환기자

'원팀' 강조한 안철수 "함께 생각하고 지혜 모아달라"

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주제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제2차 전체회의에서 "최고가 모였다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보장하는 것 아니다"라며 "각 분과만이 원팀이 아니라 인수위 전체가 원팀이라는 마음 가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수위는 정부 출범 전에 시대의 흐름과 국정 전반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각 분야에서 새 정부가 앞으로 나아갈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며 "불과 50일 정도의 기간에 이런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쉼도 거의 없이 열심히 일해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모든 국민의 눈과 귀는 당선인과 인수위를 향해 있다"며 "어떤 문제가 생기면 현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뿐 아니라 당선인과 인수위가 해법을 내놓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안건으로는 인수위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을 상정했다.

서선욱기자

우원식 "윤석열, 국정농단 파트너 전경련 부활시키다니...MB 시즌2"

"전경련부터 만난 건 MB 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경제6단체를 만나는 데 대해 "윤 당선자가 청와대 용산 이전 강행으로 국민의 눈을 가리는 사이 다른 한편에서 정경유착의 상징,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을 부활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경제 6단체 오찬 회동 소집을 위한 다른 경제 단체 연락, 소집 역할을 어떻게 전경련에 맡긴단 말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정단체인 대한상의를 비롯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단체를 전경련 들러리 세운 것"이라며 "전경련이 어떤 곳인가? 최순실 국정 농단의 파트너였고, 재벌 민원장구였다. 왜

신안을 발표한 뒤에다 사사건건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 반대로 발목잡기에 앞장섰는지" 지적했다.

이울러 "또한 역대 당선자 중에서 전경련부터 만난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이 유일하다"며 "윤석열부터 시작해 김태호 전 비서관 등 실패한 MB정부 시즌2를 거머쥔 답습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경제 6단체를 한꺼번에 인수위에 소집한 것도 대단히 권위주의적인 발상"이라며 "역대 어떤 당선자도 경제 6단체를 한꺼번에 소집한 적이 없다"고 힐난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장과 오찬회동을 갖는다.

최이슬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